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설 맞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 운영한 기자 | 승인 2026.02.13 09:37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는 설을 맞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했다/농어촌공사부여

[중부매일 운영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를 위한 취지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지사장 최인모)는 12일 부여 중앙시장 일원에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 ~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원활한 은퇴를 돕고, 동시에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헥타르(ha)당 월 50만원(연 600만원)이 지급되며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은 1헥타르당 월 40만원(연 480만원)이 지원된다.

최인모 지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의 세대교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한 기자 press4030@jbnews.com